일본현대시에 나타난 일제강점기 조선의 기억

이영희*

〈차 례〉

1. 머리말
2.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
3. 원폭과 천황책임론
4. 침략주의 비판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일본현대시 속에 나타난 일제강점기 조선의 기억을 테마로, 일본시인들의 눈에 비친 자국의 국가적 폭력과 피지배자 조선인에 관해 어떻게 포착하여 문학적 재현을 행했는지 고찰해 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원폭과 천황책임론」「침략주의 비판」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니시나 오사무(仁科理)는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억울하게 살해당한 사실에 대해 분노의 시를 썼다. 또 쓰보이 시게지(壺井繁治)는 학살당한 조선인의 영혼을 소생시켜 일본의

*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시간강사

만행을 고발했다. 쿠리하라 사다코(栗原貞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였던 조선인 시점에서, 조선인 차별을 토로하는 시를 엮어 일본정부를 비판하고, 전쟁책임을 천황에게 되묻는 날카로운 시를 썼다. 이바라기 노리코(茨木のり子) 또한 천황의 전쟁책임론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한 시를 남겼다.

모리자키 가즈에(森崎和江)는 조선의 아름다운 풍습을 시로 노래하고, 강제로 일본에 끌려 온 조선인들의 귀향에 대한 바람을 슬프게 표현하며 일본의 비도함을 폭로한다.

하세가와 류세이(長谷川龍生)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암살한 사건을 언급하며, 안중근(安重根)의 행위를 훌륭한 의거(義擧)하고 찬탄하는 시를 썼다.

시인들은 과거 일본이 조선에게 저지른 폭력에 대해 제각기 격렬한 항의와 반발을 생생하게 묘사하거나, 소극적으로 표출하기도 했지만 타민족이라는 경계를 초월해 조선민족과 함께 분노하고 통탄해 하며 호소했다.

일본 시인들의 기억을 통해 일본이 저지른 조선에 대한 폭력을 분석하고 아울러 우리 민족과 정서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했다.

주제어: 일본현대시, 일제강점기, 조선, 폭력, 기억

1. 머리말

본고는, 일본현대시 속에 나타난 일제강점기 조선의 기억을 테마로, 피지배자였던 조선인에게 저지른 일본의 국가적 폭력을 어떻게 포착하여 문학적 재현을 해 왔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일

본근대시에서도 일본 침략주의의 폭력의 양상을 표현한 시를 상당수 볼 수 있다. 일본 사회주의시인들도 일제 침략에 허덕이는 조선을 묘사했었고[1], 사계파(四季派)시인들 또한 일제 강점기 하의 조선에 대한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2]

제각기 추구하는 문학세계는 상이했지만 식민지 조선을 소재로 한 시와 단가에서 자신의 생각 및 사상, 그리고 정서를 표현해 왔다.

현대시에도 이와 같은 흐름이 이어져 일제강점기하에 일본의 폭력에 핍박당하는 한민족의 억울함과 분노, 아울러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시로 읊어 슬픔을 토로했다.

그 중에는, 조선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속, 우수한 문화유산에 대해 찬탄과 경외감을 표현한 시도 수 편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일제의 폭력에 관한 기억'을 중점으로 다루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 원폭과 천황책임론, 일제 침략주의 정책 비판을 각 장으로 나누어 관련 시를 분석했다.

서로 다른 민족이라 해도, 지배자와 -피지배자 관계가 아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인간으로서, 일본의 폭력적 지배에 대한 분노와 연민이라는 정서적 유사성이, 근대기에 이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용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

1) 여기에 관련된 논문은 이영희, 「일제 강점기 일본사회주의 시인의 조선인식」,일본어문학회, 『일본어문학, 제45집, 2009.5,에 발표되었다.

2) 여기에 관련된 논문은 이영희,「일제 강점기 사계파시인들의 조선인식」일본어문학회, 『일본어문학』 제49집, 2010.5,에 발표되었다.

니시나 오사무(仁科理)는 관동대지진 때 일본의 폭력에 의해 살해당한 조선인을 주제로 「한 살이 된 딸에게 들려주는 동화(一歳になった娘に話す童話)」라는 시를 남겼다.

> 가령 1952년 어느 날 / 사이타마현 고다마군 가미사토마치라는 한 촌에, /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위령제」라는 탑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 1923년 9월 1일의 슬픔이 / 인간의 양심이 되돌아 온 것은 아니다 / 비(碑) 뒷면에 / 「다이쇼12년(1923년)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이 / 난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 때문에 도쿄방면에서 온 / 수십 명의 사람들이 / 이 땅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 라고 새겨진 언어는 돌보다도 차갑다. / '죽음'은 굴욕으로 무겁게 잠들어 있다 / (중략) / 아아 나는 너를 위해 노래하리라 / 조선인의 '죽음'이여! 사회주의자의 '죽음'이여! 박멸, 총살, 액살, 교살, 약살, 학살! 유언비어의 '죽음'이여! 죽음이 아닌 '죽음'이여! '말'이 '말'이 안 되는 '죽음'이여! / '죽음'은 더 자유롭고, 더 격렬한 분노라는 것을. /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후략).[3]

위 시 「한 살이 된 딸에게 들려주는 동화」는 부모가 딸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설정으로, 관동대지진 때,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당한 사실을, 「박멸, 총살, 액살, 교살, 약살, 학살!」 등으로 나열해 분노를 자아낸다.

한편, 관동대지진 때 살해당한 조선인을 소재로 최초로 분노의 단가를 쓴 사람은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郎)이다.[4]

「조선인 무수히 살해당해 / 그 피 백리까지 흐르네 / 분노하며 보노라, 저 참학(慘虐)함을」이라고, 사쿠타로는 단가 안에 참학

---

3) 嶋岡晨他編, 『戰後詩体系Ⅲ』, 三一書房, 1970, p.101.

4) 「조선인 무수히 살해당해/그 피는 백리까지 흐르네/분노하며 보노라, 저 참학(慘虐)함을」初出 「現代」(1924. 9). 萩原朔太郎, 『萩原朔太郎全集』, 第3卷, 筑摩書房, 1975, p.138. 全文 인용.

(慘虐)이라는 시어(詩語)를 창조하여 불타는 분노를 신랄하게 표출했다. 이 시기에 사쿠타로를 알게 된 쓰보이 시게지(壺井繁治)는 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쓰보이 시게지 또한 관동대지진을 테마로 서사시를 발표하는데, 「쥬고엔고줏센(十五円五十錢)」이 그것이다.[5]

「내(僕)」가 보고 들은 사건을 모아 구성한 이 시는, 관동대지진이 발발한 1923년 9월 1일 정오 2분 전부터 쓰기 시작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내용이 진행되어간다. 초점은 차례차례로 일어나고 있는 「나(僕)」의 에피소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다.

> 1923년 9월 1일 / 정오 2분전의 한 순간 / 지구의 어느 한 부분이 격하게 몸서리쳤다 / 관동일대를 뒤흔드는 대지진 / 이 재앙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 / (중략) / 그날 동틀 무렵 / 어마어마한 호우가 시작되었다 /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 한꺼번에 씻어 낼 정도의 기세로 쏟아졌다 / (중략) / 내가 눈을 떴을 때 / 방의 벽들은 이미 소리를 내며 무너지고 / 땅속의 커다란 동요는 / 어떻게 해 볼 수도 없는 힘으로 나의 모든 감각에 다가왔다 / 우에노역이 내려다보이는 벼랑 끝에 서서 / 끝도 없이 번져가는 화재를 바라보고 있으니 / 너무나 강력한 불의 자극 때문에 머리가 저릴 정도였다 / (후략)

이러한 현실생활에 정면으로 맞선 현실주의의 시라는 의미에서, 쓰보이의 시로서는 획기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이 시의 일행 일행이 서사적인 전개라고 하는 점에서는, 비평정신의 본연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다. 위에서 인용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지진의 묘사는 작가의 주관을 포함해, 더 한층 높은 견지에서 비판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다음 행으로 이어지

---

5) 쓰보이 시게지의 「쥬고엔고줏센」에 관한 부분은, 전게논문, 이영희, 「일제강점기 일본사회주의 시인의 조선인식」, pp.415- 416에서 수정, 재인용.

는「 화재가 아직 진화되지 않는 동안에 / 유언비어가 재빨리 장안을 휩쓸었다/ 조선인들이 요코하마 쪽에서 떼 지어 몰려온다!」라는 대사건의 프롤로그로서 위치를 차지한다.

「나」라는 개인이 경험한 에피소드를 통해, 제3자의 입장에서만 관찰할 수 없었기에「나」의 이 체험은 조선인과 동일한 투쟁으로 묘사했다. 이「나」의 입장은 살해당한 조선인을 애도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와 닿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 시는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 그대들을 죽인 자가 구경꾼들이라고 말하는가?/구경꾼들에게 죽창을 들게 하고, 쇠갈고리를 잡게 하고, 일본 칼을 휘두르게 한 것은 누구였던가?/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자부통」이라는 일본말을「사후통」이라 밖에 발음할 수 없었기에/단지 그것 때문에/무참하게 살해당한 조선의 친구들이여/자네들 스스로의 입으로/자네들 자신이 살아있는 몸에 받은 잔인함을 말하지 않는다면/자네들 대신 말하는 자에게 말하게 하자/지금이야말로/강요된 일본말 대신에/다시 찾은 부모님께 물려받은/순수한 조선말로[6]

3. 원폭과 천황책임론

원폭의 참담함을 고발함과 동시에 원폭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받는 조선인에 대해 쿠리하라 사다코는「돌 속에서(石のなかから)」라는 시를 통해 신랄하게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

> 돌 속에서 들려 온다 / 불에 탄 수 만 명의 사자(死者)의 소리 / 물

6) 壺井繁治,『壺井繁治全集』, 第1卷, 青磁社, 1988, pp.59-65. 詩作은, 1947년 8월이며, 초출은 新日本文學會編 ,「新日本文學」, 4月号.1948.

물 달라/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 천년의 원한을 담아 / 밤의 공기를 떨게 한다 // 공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 강변의 비석 속에서 / 하룻밤 내내 들려오는 수 만 명의 사자(死者)의 소리/물 물 달라 물 달라 // 고향의 논밭을 일구고 있다가 / 강제로 연행되고 / 고향의 마을과 거리를 걷고 있다가 / 강제로 연행되고 / 아내와 자식, 부모형제에게도 / 이별의 말조차 주고받지 못하고 / 우마(牛馬)처럼 연락선에 실려 / 해협을 건너 연행되었다 // 타국의 신에게 참배할 것을 강요받고 / 타국 국왕에게 충성맹세를 강요받으며 /마지막에는 /섬광에 불탄 검은 해골이 되어 / 무리진 까마귀들에게 쪼아 먹혔다.[7]

미점령군(GHQ)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원폭의 비참함을 감추기 위해 원폭에 관한 표현을 탄압했다. 또 원폭에 의해 종전이 되었고 평화를 가져왔다는 인식을 전개하고자 했다.

같은 피해를 입고도 「공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 강변의 비석 속에서 / 하룻밤 내내 들려오는 수 만명의 사자(死者)의 소리」에서 차별받는 조선인을 묘사하고, 「물 물 달라 /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라고 되풀이 되는 표현은, 수 만명의 사자가 원한에 쌓여 저주하는 말처럼 느껴진다. 또 일본정부가 저지른 죄를 반복해서 질책하듯, 메아리치는 것 같은 묘사를 하고 있다.

또 「우마(牛馬)처럼 연락선에 실려」 강제 연행되어, 「타국의 국왕」 즉 일본천황에게 「충성맹세를 강요당하고」, 마침내 「섬광에 불탄 검은 해골이 되어」 까마귀들에게 쪼아 먹히는 조선인의 기구한 일생을 리얼하게 표현해, 더 이상의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원폭문학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조선인 희생자를 다루고 있지 않은데[8], 쿠리하라 사다코 만이 조선인에 대한 언급, 구체적으로

---

7) 吉田欣一編,『栗原貞子詩集』, 土曜美術社, 1984, pp.93-94.

8) 卞宰洙, 「朝鮮と日本の詩人-栗原貞子-」, 「朝鮮新報」2007.11.12. 인터넷주소창: http://www1.korea-np.co.jp/sinboj/j-2007/06/0706j1112- 00002.htm. 2012년

는 차별과 비참한 죽음을 묘사한 점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본인 수백만명을 천황의 이름하에 죽게 하고 아시아의 수천만을 비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장본인인 천황에게 전쟁책임을 되묻는 신랄한 시를 수 편 남겼다. 먼저 「상냥한 인간 천황님 (やさしい人間天皇さま) 」이라는 시를 보자.

강아지에게도 빙긋/양로원의 노인들에게도 빙긋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에게도 빙긋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건강 조심하세요」/ 롯포학원(六方學園)의 지적 장애아동이/「아쩌씨」라고 부르는 약간 고양이 등을 한 / 상냥한 인간 천황님//그런데 도쿄에서 히로시마로 가는데/자주색의 궁정자동차 몇 대를/특별 수송시키고 모든 도시의 도로라는 도로는 / 일용노동자와 근로봉사로 꽉 채워 / 청소작업을 시키고 / 히로시마현에서는 피스톨과 곤봉을 든 경관의 / 경비비용은 몇 백만 엔을 계상하고 / 3일간 체재에 소 4마리를 죽여 / 잡수실 부분만 / 오동나무상자에 담아 / 냉장고에 넣어 두고 도착을 기다렸다 // 가두에는 흔들 손도 없고 발도 없는 / 더러워진 백의의 용사들 / 미국병사와 손을 잡고 가는 / 패배한 나라의 딸들. / 뜨거운 함석 판잣집에 살며 /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어두운 무리들을/강제집행으로 내쫓고/철근콘크리트 빌딩이/즐비하게 세워진 히로시마의 거리 / 몰라볼 정도로 부흥했다며/칭찬을 받았다고는 하지만/부흥한 것은 피를 빨아먹은 악독한 상인들 뿐/바람에 불려 모여온 나뭇잎처럼 / 강변 둑에 밀집된/판잣집에 살며/텅 빈 쌀궤에 한숨을 쉬며/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묽은 피의 히로시마족 // 카키색의 대군이 조선해협을 / 건너간다는 소문은 이어지고 / 결국 우리들의 남편과 아이가/다시 육탄이 되려 한다는 사실도 / 알고 계시는 걸까 / 모르고 계시는 걸까 / 강아지에게도 빙긋 / 약간 고양

11월 11일 검색

이 등을 한/상냥한 인간 천황님(『平民新聞』1952,1,15)[9]

동물인 강아지에게도, 노인과 고아들, 장애아동에게도 빙긋하며 미소를 보내는 「약간 고양이 등을 한/상냥한 인간 천황님」이 진정으로 상냥한 것일까. 진정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다정하게 감싸주며 지켜주고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을 천황님의 히로시마 순행에 수반되는 「궁정자동차의 특별수송」「모든 도로의 청소」「수 백만엔의 경비비용」「3일간 체제에 소 4마리를 죽여」 등의 화려한 준비의 콘트라스트로 나열한다. 「흔들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더러워진 백의의 용사들/미국병사와 손을 잡고 가는/패배한 나라의 딸들」「텅 빈 쌀궤에 한숨을 쉬며/하루하루를 연명」하는 하루살이 히로시마인들을 대비시키는 묘사를 통해 상냥한 인간천황님을 즉좌에서 부정한다. 쿠리하라 스스로 『핵ㆍ천황ㆍ피폭자(核ㆍ天皇ㆍ被爆者)』라는 책을 간행했듯이, 그녀의 원폭문학의 모티브에 있어서, 천황과 피폭자와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연속적인 테마이기도 했다. 그녀는 천황제에 대한 거부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王さまの耳はろばの耳」)라는 시를 읊어 천황의 어리석음을 풍유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되풀이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노래하는 느낌이 연상되는 리듬감 있는 묘사를 도입했다.

누구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말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순진한 중학생과/임금님께 조국을 빼앗긴 조선의/젊은이까지 지원하게 해서/용감한 하늘의 독수리 용감한 바다의 독수리라고 추켜세워/바다 남쪽 끝과 정글 속에/대륙의 들판에 시체를 드러내게 했다.//

9)栗原貞子,『日本の原爆記録19原爆詩集広島編』,日本図書センター,1991, pp.399-401.

> 누구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 임금님을 신(神)이라고 생각해 / 신국(神國)에 등 돌리는 나라들을 귀축(鬼畜)이라 비난하고 / 전부 불태우고 / 전부 빼앗고 / 전부 죽이고/금치훈장(金鵄勳章)[10]을 받았다. // 누구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님은/왕제(王制)를 지키기 위해 항복하지 않아/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 폭탄이 투하되어/30만 시민을 태워 죽였다. // 전쟁에 져서/드디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임금님도 「내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선언했다/(후략)1980.2.1.[11]

여기에서도 쿠리하라는 조선에 대해 재차 언급, 「임금님께 조국을 빼앗긴 조선의/젊은이까지 지원하게 해서/용감한 하늘의 독수리 용감한 바다의 독수리라고 추켜세워/바다 남쪽 끝과 정글 속에/대륙의 들판에 시체를 드러내게 했다」며 반복해서 천황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여기서 동화이야기「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와의 알레고리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때 당시까지 존재하는 쇼와천황이 얼마나 우스광스러운지 그 비아냥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게다가 극도의 혐오의 감정을 담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거듭 5번씩이나 되풀이해서 비난하고 있는 시이다.

위 시는 천황의 전쟁책임 회피에 대한 규탄의 시로, 배경이 된 것은 쇼와천황이 1975년 10월31일, 첫 방미(訪米)를 하고

---

10)제2차 세계대전까지 운용되고 있었던 일본훈장의 하나로, 무공발군의 군인·군속에게 수여했다. 1890年2月11日 건국기념일에 황기(皇紀)2550년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그 배경에는 청일전쟁을 앞두고 일본군대가 대외적 군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있었기에, 군인·군속의 지위를 높이고 사시를 앙양할 의도가 있었다. 금치(金鵄)의 이름은 신무천황이 동정(東征)할 때, 금색의 솔개가 천황의 활에 머물러, 적인 나가스네히코의 군세가 눈이 어두워져 항복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청일전쟁 중에 수장자에게는 종신연금이 주어지게 되어 명예와 함께 경제적 은전도 수반하게 되었다. 패전후 GHQ의 지시로 폐지, 연금도 무효가 되었다. 수장자는 약 94만명이나 되었다.

11) 栗原貞子,『反核詩集 核時代の童話』,詩集刊行の会,1982, pp.16-17.

귀국 직후, 일본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행했을 때, RCC(주고쿠방송)기자 아키노부 도시히코(秋信利彦)의 질문에 대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한다.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쟁 중에 생긴 일이므로 히로시마시민에 대해서는 딱하지만 부득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러한 말의 수사(修辭)에 대해서는, 나는 그러한 문학방면은 그다지 연구하지 않아서 잘 모르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천황은 전쟁책임의 문제를 문학론으로 운운 한 적이 있다.

「원수폭금지 국민회의」라는 단체에서는 천황의 이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사회를 열어 11월 12일, 천황의 발언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고 11월 17일, 항의문을 발송했다. 여기에 대해 40일이 경과한 12월23일, 우사미(宇佐美)국내청장관은 다음과 같은 답장을 했다.「(전략)이와 같은 형태의 기자회견은 첫 경험이시므로 너무 간결한 대답을 하시어 진의를 충분히 말씀하실 수 없었던 것으로 배찰됩니다(중략).아시는 바와 같이 그날도 원자폭탄에 관한 질문에 대해 “원자폭탄투하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히로시마시민에 대해서는 딱하지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므로, 원자폭탄투하를 긍정하는 의미의 발언이 아니라, 전쟁 중 스스로 그것을 멈출 수도 어쩔 수도 없었다는 것을 “부득이했다”라는 말로 하셨다고 배찰됩니다(후략)」

쿠리하라는 이 회견에서 명백해진 것은 우선, 전쟁책임을 문학상의 표현의 문제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 다음으로,「일본의 국민성과 미국의 국민성은 다르다」라고 단정한 천황과 국민과의 민주적 접촉은 어렵다고 표명한 점, 셋째 「원폭투하는 부득이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우사미 국내청장관의 보충설명처럼 「이러한 회견에 익숙하지 않아서 진의가 전해지지 않았다 라는 말은 이해가 안된다. 회견 때,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은?”이라고 묻자 “어떤 TV프로그램을 보고 있는가는 방송회사의 경쟁이 심해지므로 말할 수 없다”

고 농담을 섞을 정도로 선명하게 자기규제를 한 천황이, 익숙하지 않아서 진의를 전할 수 없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12] 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오히려 「오랫동안 제왕학에 의한 언어조작의 명인이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전쟁책임의 문제를 문학상의 문제로 하고, 빵을 요구하는데 돌을 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되는 바이다」[13]라는 발언을 했다.

계속해서 쿠리하라는, 포츠담선언에 따른 무조건항복을 기한 내에 했더라면, 원폭투하는 피할 수 있었는데 천황제유지를 위해 마지막기회를 놓치고 원폭투하 후, 무조건 항복을 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30만 사자(死者)와 생존자 40만 명은 천황제 호지를 위해 희생된 것이다. 전쟁 중의 일이라 부득이 했다가 아니라, 연합군에 의해 7월26일부터 8월3일까지 기한 내 항복권고의 회답을 일본 측이 거절했기 때문에 미국에게 「즉좌에 철저한 파괴」를 받은 것이다. 천황의 원폭발언은 피폭자의 분한 마음 위에 원통함을 겹친 것이다[14], 라고 비난했다.

또 쿠리하라는 그의 논문에서 그야말로 아이러니한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2차 대전 중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진주만작전을 세운 대본영의 작전참모 하라다 미노루(原田實)는 1962년 미국의 대통령이 주는 훈장을 받게 된다. 이것은 미국민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당국은 「하라다씨는 일본공군의 우수한 장교로 미국과의 관계도 협력적이어서 훈장수여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는 또 미국해군의 초대로 전미(全美)를 강연하러 다니고 「만약 일본이 원폭을 갖고 있었다면 사용했겠지요.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을 때에는 어느 나라라도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투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라는 연설도 했으며 록히드사건 때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마찬가지로 65년 12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투하 작전지휘를 한 미국의 카치스.E. 루

---

12)栗原貞子,「被爆三十年と戰爭責任者の發言」,『現代の眼』,現代評論社,1976.9, pp.203-204.

13)栗原貞子,「被爆三十年と戰爭責任者の發言」,上揭書, pp.203-204.

14)栗原貞子,「被爆三十年と戰爭責任者の發言」,上揭書, pp.205-206.

메대장에게 훈일등욱일수장이 자위대육성공로에 의해 수여되었다. 미일 양정부는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맹군이라며 원폭투하와 진주만기습작전의 전쟁책임을 서로 상쇄하고 서로에게 훈장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15]을 밝히고 있다.

이바라기 노리코 역시 그녀의 시 몇 편에서는 수뇌부의 책임을 묻는 장면이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전쟁책임을 묻자 /그 사람은 말했다」로 시작하는 「사해파정(四海波靜)」이라는 시이다.

과거의 군국주의정책,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최고 수뇌로서 쇼와 천황의 전쟁책임을 묻는 시로, 이바라기 노리코의 시들과는 분위기가 상이하며, 상당히 신랄하고 노골적이다.

시의 배경은, 1945년 9월 27일, 쇼와천황이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사령관 맥아더와의 제1회 회견에서 「나는 국민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군사 양면에서 행한 모든 결정과 행동에 대한 전 책임을 지닌 자로서, 나 자신을 당신이 대표하는 제국(諸國)의 재결(裁決)에 위임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한다. 그 후 30년 후, 1975년 10월 31일, 첫 방미(訪米) 후 귀국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소위 「전쟁책임」에 대해 질문하자 천황은,「그러한 말의 수사(修辭)에 대해서는, 나는 그러한 문학방면은 그다지 연구하지 않아서 잘 모르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을 텔레비전을 통해 본 시인이 다음과 같은 비판시를 탄생시켰다.

> 전쟁책임을 묻자 /그 사람은 말했다 /그러한 말의 수사(修辭)에 대해 /문학방면은 그다지 연구를 하고 있지 않아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웃음이 터져 나와 /검붉게 웃는 토혈처럼 /내 뿜다가는 멈추고 다시 내 뿜는다 //세 살짜리

15)栗原貞子,「被爆三十年と戰爭責任者の發言」,上揭書, pp.208-209.

아이라도 웃겠지 /문학연구를 해내지 못했으니 아바바바바[16]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하다니 /4개의 섬들에 /웃고 웃겨 울려 퍼지게 할 것인가 /30년 만에 한번 나온 터무니없는 블랙 유머 //비바람을 맞고 있는 해골조차 /달가닥 달가닥거리며 웃었는데 /웃기는커녕 /요리토모급(賴朝級)의 야유[17] 한번 날리지 못하고 / 어디로 갔는가 흩어졌는가 라쿠슈(落首)[18]쿄카(狂歌)[19]의 스피릿 / 사해의 파도 묵묵히 /어쩐지 기분이 으스스한 군중과 /고시라카와(後白河)이래의 제왕학(帝王學)/무음(無音)인 채 달라 붙어서 / 올해도 귀기울이는 제야의 종[20]

이바라기 노리코는「한번 본 것(いちど視たもの)」이라는 에세이 중에서 이 자작의 시「사해파정(四海波靜)」에 언급해, 천황의 무책임성을 거듭 비판하고 있다.

전후(戰後)의 사회현상 속에서「아아 전쟁에 진다는 것은 이러한 것인가」라고 한심하게 느끼게 된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도덕의 황폐이고 <모면하고 수치를 모른다>는 대소의 무책임한 태도이다. 누구보다 그 모범을 보인 것이 천황자신이다. 신격을 부정하고 스스로 <인간>임을 선언한 것은 1946년 1월인데, 인간선언을 한 이상, 감정과 이성이 인간이다. 특히 인간의 말을 하지 않으면 곤란한데, 1975년 기자회

16) 말 못하는 유아가 내뱉는 소리

17) 역사적 일화를 바탕으로, 고시라카와법황이 요시쓰네에게 요리토모를 토벌하 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알게 된 요리토모는 격노하여, 대군(大軍)을 교토로 보내겠다고 위협했다. 고시라카와법황은 요리토모에게 본의가 아니라 천마(天魔)의 탓이라고 변명했다. 이 변명에 대해 요리토모는 “당신이야말로 일본 제일의 요괴이다. 당신이외의 천마는 없다”라고 분노하며 답장을 내동댕이쳤다고 한다.

18) 풍자, 비판,조롱의 뜻을 담은 익명의 익살스런 와카. 시가의 형식에 의한 낙서.

19) 사회풍자나 야유, 골계를 담은 57577의 음으로 구성한 諧謔形式의 단가.

20) 초출「ユリイカ・現代詩の實驗」1975年12月臨時增, 靑土社, 茨木のり子,『茨木のり子集 言の葉2』, 筑摩書房, 2010, p.90에서 재인용.

> 견은 격렬하게 화가 날 정도로 최저였다. 너무 최저여서 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의 블랙유머!(중략) 전쟁책임에 관한 질문에, 그 사람은 대답했다. 「그러한 말의 수사(修辭)에 대해서는 나는 문학방면의 연구를 하고 있지 않아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문학방면의 연구를 안했다면 말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조이스의 연구를 마치고나서 서서히 아바바바라든가 우마우마[21]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22]

계속해서 이바라기는 저런 천황의 모습을 보고 저널리즘도 민중의 반응도 미지근하여, 아무도 「이 악마야」라고 요리토모급(賴朝級)의 야유한번 날리지 못했다. 이런 천황의 말을 간과할 수 없어서 세련되지 못하지만 「사해파정(四海波靜)」이라는 시를 쓰지 않고는 있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렇듯 정치적인 문제를 소재로 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시로 한 다는 것은 일본에서는 상당히 드문 일이다. 전쟁책임을 애매하게 얼버무리려고 하는 천황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위 시에서 노골적이며 확연하게 표현했다. 또 천황을 제재로 한 「족보(系図)」라는 시가 있다.

> 어린시절에 /철저히 주입시킨 것은 /만세일계론(万世一系　論) /되풀이하고 되풀이하여 /한 집안의 족보를 암송 /그것이 히스토리였으니/지금쯤 히스토리컬하게도 되었지 /한 집안의 내력이 이렇게까지 확실하다는 것은 /오히려 거짓이 많다는 증거 /라고 고개가 가슴에 오도록 끄덕 끄덕 하기까지 /긴 세월을 요했다 //몇 대(代)인가 앞, 몇 십대인가 앞 /그 앞은 묘연하여 행방을 모르는 것처럼 /보통 집안의 선조는 가물가물하고 /희미한 것이야말로 진실이 아닌가 //아버지쪽 가문은 가와나카지마의 싸움(川中島の

---

21) 우마이우마이(맛있다의 유아어)

22) 茨木のり子,「いちど視たもの」, 思想の科學社,『思想の科學 』, 第6次-75, 1977.5, p.101.

戰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어머니쪽 가문은 겐로쿠(元祿)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앞은 안개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 하지만 나의 맥박이 지금 1분간 70이라는 /정상치를 헤아리고 있다는 사실은 /허세가 아니다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 대체로 한결같이 다가오는 자들 / 자마이카에서 커피콩을 따는 사람도 /옆집 꼬마도 /옛 사람의 옷자락의 향기를 흩뿌리고 있고 /지금 한창 꽃이 핀 귤나무도 /어제 만난 와치(和智)씨도 /어찌된 영문인지 밤마다 우리 집 처마 밑에 /응가하고 사라진다 / 도둑고양이도 /노트에 흔적을 뚜렷이 남기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한 마리 참새도 /정신차려보니 내 몸 주위는 /만세일계투성이다.[23]

매번 평이한 말을 화살로 삼아, 소재의 오저를 꿰뚫어 내는 시야 를 갖고, 해학과 풍자로 예리하게 묘사한 실로 훌륭한 시이다. 이바라기 노리코는 민중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천황제를 계속 존속시킬 것인가에 대해 강한 부정을 보이고 있다. 그녀의 에세이 「한번 본 것(いちど視たもの)」에서 「어느 재일교포가 잡담 중에 불쑥 말했다. “천황제를 그대로 놔두고, 록히드뇌물사건의 추궁도 하지 않네요” 이 말은 정론중의 정론으로 내 귀 언저리를 강하게 때리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도 또한 천황제 그 자체보다도 일본인의 노예근성을 비판한 것이었다. 유럽 사람들이 일본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는 급급해서 관심을 보이지만, 동양인-특히 일본이 이전에 심한 짓을 한 중국, 조선, 동남아시아사람들-이 현대일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는 듯한 태도는 정말로 우스광스럽다」[24]고 비판한다.

---

23) 阿部良雄編, 「ユリイカ」, 青土社, 1973.5, pp.66-67.
24) 茨木のり子, 「いちど視たもの」, 전게논문, p.104.

4. 침략주의 비판

이 장에서는, 먼저 하세가와 류세이(長谷川龍生)「황족역(皇族驛)」을 인용한다.

>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 선채로 졸고 있는 동안에 / 하나의 역을 발견한다 / 그것은 식민지의 역. 침략계획의 역. 메이지 42년 10월26일 아침 일찍 / 아득히 회색지평선이 보이는 하얼빈의 역두(驛頭)이다/ 슈바를 입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앞에/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 브라우닝 권총 흑색 칠연발이 불을 뿜은 것이다 / 그 때 일순,/ 플랫폼의 시간이 정지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푹석 무너지고 있다/ 가와카미(川上)영사가 오른팔을 공간에 헤엄치게 하고 있다 / 모리 카이난(森槐南)이 어깨를 누르고 침을 흘리며 얼굴을 떨구고 있다 / 나카무라 만테츠(中村滿鐵)총재가 뒤집어지고 있다 / 귀족원 무로타 요시아야(室田義文)는 흰 눈동자가 튀어 나오고 입에서 거품을 뿜고 있다 / 러시아의 출영무관(出迎武官)들이 멍하니 직립부동자세로 바라보고 있다 / 이토 히로부미의 혈흔이 공간에 멈춘 채 / 변색되어 응고하려 하고 있다.[25]

말할 것도 없이 안중근의사의 의거를 찬탄하고 있는 시이다.「황족역」이란, 하라주쿠(原宿) 부근에 있는 천황일족 전용 역을 말한다.「그것은 식민지의 역. 침략계획의 역」이라는 표현에서, 침략주의 정책을 수행하는 일제와 최고수뇌인 천황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인용한 부분은 독자로 하여금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선명하게 이미지를 그리게 한다.

특히「이토 히로부미가 푹석 무너지고 있다./가와카미(川上)영사

25) 長谷川龍生,『長谷川龍生詩集』, 1967, pp.301-315.

가 오른팔을 공간에 헤엄치게 하고 있다/모리 카이난(森槐南)이 어깨를 누르고 침을 흘리며 얼굴을 떨구고 있다 /나카무라 만테츠(中村滿鐵)총재가 뒤집어지고 있다/귀족원 무로타 요시아야(室田義文)는 흰 눈동자가 튀어 나오고 입에서 거품을 뿜고 있다」의 표현에서는, 침략의 악행을 거듭했던 주역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거침없이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이 시는, 「저격의 순간의 긴장감을 '플랫폼의 시간이 정지했다'라는 시행으로 포착하고, 그것이 '이토 히로부미의 혈흔이 공간에 멈춘 채/변색되어 응고하려 하고 있다' 이하 2행과 호응하여 발흥하고 있었던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침략의 야망을 도려내고 있다」[26]라고도 해석되고 있다.

모리자키 가즈에(森崎和江)는「풀밭 위의 무도(草の上の舞踏)」라는 시에서 한국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축제 및 추석의 풍속을 정겹게 표현했다. 그녀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대구에서 태어나 17세 때까지 경주, 김천 등지에서 학교를 다녔다. 자신의 모국을 한국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며, 「나는 오로지 조선에 의해 자랐다」라고 말하는 시인은, 그의 시집에서 「식민지화 된 조선에서 태어나 17년간 지내 온 나는, 그 땅의 사람들과 대지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는 원죄의식 아래 살아왔습니다. 일본은 국가적으로 너무나 비도한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선사람들에게 업히기도 하고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습니다」라고 토로하며 피지배자인 한국인의 입장에서, 또 조선인들을 강제연행한 일제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시를 쓴 것이 바로 이 시이다.

옛날부터 봄이 되면 들과 산에서 / 여름에는 약수터에서 / 어머니들

---

26) 卞宰洙,「朝鮮と日本の詩人-長谷川龍生-」, 「朝鮮新報」. , 2009,6.8인터넷주소창: h ttp://www1.korea-np.co.jp/sinboj/j-2009/06/0906j0608- 00005.htm. 2012년 11월 11일 검색

은 노래하고 춤을 췄습니다 / 마을 축제날에도 / 제사가 끝나면 모두 빙 둘러 앉아 식사하고 / 그리고 노래하고 춤을 췄습니다 / 여기 저기 마을에서 / 밭두렁을 넘어 장구소리가 울렸습니다 / 쾌청하게 맑은 새파란 하늘이 / 오렌지색으로 바뀌고/ 이윽고 서늘한 바람이 이는 저녁 무렵이 되어도 / 제각기 춤을 추었고 / 때로는 수십 명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 음력 8월15일을 추석이라 합니다 / 이 날은 멀리 일하러 간 사람들도 / 고향에 돌아와 / 조상님의 묘에 갑니다 / 여자들은 햅쌀로 술을 빚고 // 떡을 찧고 / 가족이 모여 조금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 잔디로 뒤 덮힌 둥근 묘가 / 그 산에 있으니까요 / (중략) // 늙어가는 어머니들의 대부분은 /이 일본풍토 속에서 / 선조가 잠든 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또 그 어머니들이 전했던 / 그 선녀옷의 춤과 같은 무용도 축제도 /일본에서 태어난 자식과 손자에게 전할 도리가 없습니다.27)

시인이 소녀시절 때 본 조선에서의 옛 농촌풍경을 회상하면서, 노래와 춤을 즐기는 민족의 풍요로움을 묘사하고, 마을 축제와 추석의 아름다운 풍속을 잘 노래했다. 그야말로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한민족임을 표현하고, 갑자기 공간을 일본으로, 또 시점을 재일교포로 옮겨 「늙어가는 어머니들의 대부분은 /이 일본풍토 속에서/ 선조가 잠든 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 그 어머니들이 전했던 /그 선녀옷의 춤과 같은 무용도 축제도 /일본에서 태어난 자식과 손자에게 전할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오손도손 정겹게 살다가 일본에 강제 연행되어 옛날처럼 축제도 춤도 출 수 없고, 일본에 있는 자손들에게도 한민족의 풍속을 전해 줄 수 없는 아픔을, 일본에 온 할머니들의 슬픔과 귀향의 소원을 담아 소박하게 노래했다.

모리자키의 작품 『북상환상(北上幻想)』에는 「생명의 모국(母國)

27) 森崎和江, 『森崎和江詩集』, 土曜美術社, 1984., pp.55-56.

을 찾는 여행」이라는 부제가 있는데, 그녀의 고향이라면 태어난 대구 또는 경주이기도 후쿠오카이기도 하지만, 『경주는 어머니가 외치는 소리(慶州は母の叫び聲)』라는 책을 간행했듯이, 한국에 대한 언급은 빈번하다.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도 「조선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추억에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하고, 「한국의 거제도에서 지적장애자아동시설의 원장을 하고 있는 옛 친구가 올해도 5월에 무나카타(宗像)까지 수학여행을 온답니다. 내일 만나는데, 자! 치마 저고리를 입고 힘을 냅시다」[28]라며, 한국은 따뜻한 가족과의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모국이며, 생기 있게 활약하게 만드는 원천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바라기 노리코는 나날의 생활 속에서 만난 한 권의 책을 계기로, 「내」 가 「의혹」을 품고 있는 모습을 「바구니」로 표현, 「유대인은 왜 박해받는 것인가」라는 「의혹」이 조선 사람들이 관동대지진 때, 왜 죄 없이 살해 당했는지로 이어지고 흑인 여학생은 왜 칼리지에서 배우면 안 되는지의 의혹으로 이어진다. 「장・폴・사르트르에게－유대인을 읽고」를 인용해 보자.

> 어딘가 마을의 그리운 풍속처럼 /나는 언제나 머리 위에 / 커다란 바구니를 이고 있었다 //바구니 속에는 몇 개의 의혹이 가득 /발효되고 있는 빵과 같은 것 /익어가는 과일 /쭈그러지고 만 대추알 /깨어나려고 해도 깨어나지 않고 아직 졸고 있는 /나태한 꽃봉오리 같은 것이 가득 //늦봄 어느 저녁 무렵 /한권의 얇은 유대인을 다 읽고 /조용히 엎드리자 /돌연 바구니 속의 의혹 하나가 /훌륭히 잘 쪼개어진 석류처럼 //유대인은 왜 박해받을까 /유대인은 왜 미움을 받을까 /유대인은 왜 금화에 입을 맞출까 /열렬하고 농후하게 성적(性的)으로 /그렇게 하고는 쓸쓸히. …… /소박한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의혹이 /한꺼번에 폭

28) 森崎和江 「もう泣くのはやめましょうね」: 2005年3月13日 朝日新聞(朝刊) 統合版15面.

발한다 //그리스도를 빛내기 위해 오랫동안 그림자역할을 / 맡아 온 그들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공격대상이 되는 그들 / 해방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는 /잊혀지고 마는 투쟁한 그들 /어떠한 조작에도 용해되지 않는 마음에 결리는 /조바심나는 어느 결정(結晶)! /혼이 나고 쫓기고 /공동의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의해 /역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에 의해 /가장 오래 된 민족은 가장 새로운 민족으로서 /세계를 방황하며 걸었다 /인간성이라고 불리는 것의 어둡고 어두운 손이 /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낳고 기르고 /냉정하게 다루는 표적 유대인 / <잘 안되는 것은 모두 저놈 탓이다> //조선 사람들이 대지진이 난 동경에서 /왜 죄 없이 살해당했는지 /흑인 여학생은 왜 칼리지에서 배우면 /안되는지 /우리들조차 누군가가 잡은 총에 /겨누어지고 있지 않은지 /나에게는 한꺼번에 알 수 있는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참혹한 사건의 가지가지가 //사르트르씨 /나는 당신을 깊이 알고 있지 않다 /유대인의 생태(生態)도 표정도 친숙하지는 않다 /인간에 대한 전율이 또 하나 늘어났지만 /여하튼 지금 있는 것은 순수한 하나의 기쁨! //현실의 수염이 이것 때문에 /설령 조금도 실룩거리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은 반드시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1947년 당신이 파리에서 집필한 /유대인문제에 관한 고찰이 /1956년 /매일 아침 매일 아침 빨래를 만국기처럼 널고 있는 /나의 생활 속에 /다가왔다는 것은.[29]

이와 같이 나날의 생활 속에서 만난 한권의 책을 계기로 해 「내」 가 품은 어렴풋한 「의혹」은 차례차례로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의혹」이란 패전체험에 의해 깊게 품은 모순과 단절감, 균열감각, 노함과 분노의 감정이 싹튼 것이다. 나의 의혹은 나날의 생활 속에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 오히려 그림과 독서, 과일이라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가 있는 것일수록 촉발되어 일상생활이라는 장에서 단련되어 가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시이다.

이렇듯 그녀의 시는 아주 평이한 구어체의 표현으로, 과격하고

29) 茨木のり子, 『現代詩文庫20 茨木のり子詩集』, 思潮社、1985, pp.11-13.

신랄한 묘사는 보이지 않지만 독자로 하여금 절대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적극적으로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한국을 알고 싶어 전국을 구석구석 다녔던 시인은, 한국의 버 스 안에서 일본인들의 말을 듣고 있던 한 노인의 두려움과 거부반응을 보이는 표정에서 일본인들이 과거, 얼마나 잔혹한 처사를 해 왔는가라는 사실을 「총독부에 갔다 올게(總督府へ行ってくる)」라는 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 한국의 노인은 /아직도 /변소에 갈 때 /천천히 허리를 펴며 /"총독부에 갔다 올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조선총독부에서 소환장이 오면 /가지 않고는 안되었던 시대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것을 배설로 연결한 신랄한 해학 /서울에서 버스를 탔을 때 /시골에서 상경한 듯한 할아버지가 앉아있었다 /한복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소년이 그대로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 /순수함 그 자체인 인상이었다 /몇 명의 일본인들이 선 채 일본어를 조금 말했을 때 /노인의 얼굴에 외포(畏怖)와 혐오의 감정이 /휙하니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천만마디의 말을 쓰는 것보다 강렬하게 일본이 저질러 온 일들을 /그 얼굴에서 보았다[30]

위 시 「총독부에 갔다 올게(總督府へ行ってくる)」의 전문을 보면, 난해한 시와는 전혀 거리가 먼 서민적 감각의 시이며,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를 거부하는 시인의 심정을 깊이 스며들게 한 작품이다.

일본어에 두려움과 거부반응을 보이는 노인의 「얼굴에」, 시인은 자신을 포함한 일본인들이 과거, 얼마나 잔혹한 처사를 해 왔는가라는 것을 「천만마디의 말을 쓰는 것보다 강렬하게」 읽어 내고 있다. 그리고 이 행에서는 반성과 사죄의 울림이 느껴진다. 시인은

---

30) 茨木のり子, 『落ちこぼれ』, 理論社, 2004, pp.22-23.

한국에 대해 언제나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나의 양심의 가책을 구제해주듯이/당신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해준다」, 또 「눈 사태같은 보도(報道)도 넘치는 통계도/그대로 삼키지 않는다/자기대로의 조정이 가능하다」며 배려의 마음과 매스미디어의 통계를 생각 없이 집어삼키는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하는 「솔직한 말씨/청초한 차림새」의 한국인여성을 찬탄한다.

과거의 역사를 말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가 엄연하다. 지배된 사람들은 일본과 일본인에게 곱지 않은 심정을 마음 속 깊이 비장하고, 때로는 심하게 거부의 자세를 보인다. 일본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한국인에 대해 갑자기 자세가 굳어지기도 하고, 꺼림칙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의 역사 앞에 한결같이 머리를 숙이고, 해결해야 할 미래에 대해서조차 침묵을 지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문구는 신문, 잡지, 텔레비전에서 되풀이되어 「역시 그런가」라고, 두 나라의 사람들을 주문처럼 경직되게 만들고 만다. 이 문구가 오히려 「반일·반한감정」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시 속에 등장하는 두 여성처럼 중얼거리는 듯한 말투, 일상 속에서의 작은 몸짓, 아무렇지도 않은 풍경조차 공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일본과 한국 사이에 뚫려진 커다란 구멍을 매울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은 틀림없다. 그것 없이 신뢰관계의 구축은 어렵다. 가혹한 역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정치나 개인의 얼굴 없는 통계 따위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마음에 남는 것이다.

5. 맺음말

일제시대 한국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시대배경 위에 좌절감이나 상실감을 표현하는 시가 나타나, 그 분노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해 왔듯이, 같은 시기에 일본시인들의 시에서도 정서적으로 유사성을 느끼게 하는 시들이 쓰여 져 왔다.[31]

거기에는 일본시인들이 묘사한 조선과 조선인이지만, 공통적으로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지정책에 대한 강한 반발과 저항을 서정적 혹은 리얼하게 묘사하여, 이 흐름은 일본의 현대시로 이어지게 된다.

전후의 일본현대시는 전쟁에 의한 상처, 좌절, 반성이라는 정신상황을 빼고는 말할 수 없다. 대부분의 시인들은 전후 전쟁의 부조리를 응시하며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전쟁의 상흔, 피해, 또 어떻게 치유해 갔는가를 표현했다.

더욱이 그들의 시상은 과거의 일제강점기 조선으로 돌아가 일본제국주의를 비판했으며, 한국에 관한 많은 관심과 저술을 남겨 한국인들과 친교를 맺어 왔다.

위 인용문에서 처럼 일본의 현대시인들은, 조선의 문화유산에

---

31) 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는 조선의 민속을 노래하기도 하고, 무로 사이세이(室生犀星)의 경우는 고려백자를 시재로 한 수려한 서정시를 쓰기도 했다. 그 옛날 일본에 문화를 전해준 조선에 대한 경애의 정이 넘치고 있으며, 때로는 조선의 유물에 대해서도 깊게 경외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처럼 조선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항의를 노골적이며 강렬하게 표현한 시국시, 또한 다카무라 고타로(高村光太郎)의 시처럼 강제노동과 강제이주정책으로 이민족에게 지배된 상태에서 어찌할 수 없는 피지배자의 무기력감, 착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시도 있었다. 마루야마 가오루(丸山薫)나 마키무라 히로시(槇村浩)의 시 역시 국가상실이라는 민족공통의 아픔을 시 속에 내재시켜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비판과 함께 당시의 독자들에게 민족의 혼, 국가의식을 부여하여 투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키무라의 시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기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그의 시는 식민지 시대의 민족정서에 호소하여 애국심을 자명화하면서 일본군국주의의 타도로 이어가고 있다.

대한 찬탄과 함께 그것을 탄생시킨 조선민족의 우월함을 노래하기도 하고, 평소엔 온화하지만 용맹한 기질을 가진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으며, 오랫동안 이국의 풍설에 견뎌온 불굴의 민족정신을 표현하기도 했다. 또 관동대지진 때의 학살을 소재로 일제의 비도함을 신랄하게 지탄하고 있다. 쿠리하라 사다코와 이바라기 노리코의 시는 과거의 일본제국주의 비판과 함께 천황책임론 및 현재의 일본정부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인용한 시인들의 시가 모두 이상적으로 투철해서 이러한 묘사를 할 수 있었는지, 제각기 작가에 대한 위치가 다를 수 있을 것이지만, 공통적으로 식민지지배에 대해 한민족과 함께 공감하고 슬퍼하고 분노했던 정서적인 연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고는 일본시에 담긴 시심(詩心)을 읽고 양국 간의 정서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수 있었으며, 정서에 있어서의 유사성이 근대기에 이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용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고찰해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이영희, 「일제 강점기 일본사회주의 시인의 조선인식」,일본어문학회, 『일본어문학, 제45집, 2009.5, pp.415-416.

이영희,「일제 강점기 사계파시인들의 조선인식」일본어문학회,『일본어문학』제49집, 2010.5.

阿部良雄編,「ユリイカ」, 青土社, 1973.5, pp.66-67.

茨木のり子,『茨木のり子集 言の葉2』, 筑摩書房, 2010, p.90

茨木のり子,『落ちこぼれ』, 理論社, 2004, pp.22-23.

茨木のり子,『現代詩文庫20 茨木のり子詩集』, 思潮社,1985, pp.11-13.

茨木のり子,「いちど視たもの」, 思想の科學社,『思想の科學 』, 第6次-75, 1977.5, p.101. p.104.

栗原貞子,『日本の原爆記録19原爆詩集広島編』,日本図書セン

タ一,1991, pp.399-401.
栗原貞子,『反核詩集　　核時代の童話』,詩集刊行の会,1982, pp.16-17.
栗原貞子,「被爆三十年と戰爭責任者の發言」,『現代の眼』,現代評論社,1976.9, pp.203-204. pp.208-209.

嶋岡晨他編,『戰後詩体系Ⅲ』, 三一書房, 1970, p.101.
壺井繁治,『壺井繁治全集』, 第1卷, 青磁社, 1988, pp.59-65.
萩原朔太郎,『萩原朔太郎全集』, 第3卷, 筑摩書房, 1975, p.138.
長谷川龍生,『長谷川龍生詩集』, 1967, pp.301-315.
卞宰洙, 「朝鮮と日本の詩人-栗原貞子-」, 「朝鮮新報」2007.11.12. 인터넷 주소창: http://www1.korea-np.co.jp/sinboj/j-2007/06/0706j1112-00002.htm. 2012년 11월 11일 검색
卞宰洙,「朝鮮と日本の詩人-長谷川龍生-」, 「朝鮮新報」, 2009,6.8인터넷주소창: h ttp://www1.korea-np.co.jp/sinboj/j-2009/06/0906j0608-00005.htm. 2012년 11월 11일 검색
森崎和江,『森崎和江詩集』, 土曜美術社, 1984., pp.55-56.
森崎和江「もう泣くのはやめましょうね」: 2005年3月13日 朝日新聞(朝刊)統合版15面.
吉田欣一編,『栗原貞子詩集』, 土曜美術社, 1984, pp.93-94.

(투고일: 2018. 1. 31 심사완료일: 2018. 3. 15 게재확정일: 2018. 3. 21)

이영희
소속: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주소: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6층 인문과학연구소
전자우편: gomgoda21@hanmail.net

[Abstract]

Memory of the Chosen empir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in Japan contemporary poetry

Lee, Young-hee

In this paper, the theme is the memory of Korea in the Japanese poets, which appears in contemporary Japanese poetry, and how it captures the domestic violence and the non-dominated Korean who are reflected in the eyes of Japanese poets, I considered whether it had been done Specifically, I divided into "Kanto great earthquake and Korean slaughter", "Atomic bomb and emperor's theory of responsibility", and "invasionism criticism" and analyzed.

Nishina Osamu wrote an angry poem about the slaughter of innocent Koreans during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 addition, Tsuboi Shigejyi has brought back the souls of the Koreans killed then with anger and accused of Japanese imperialism. In addition, Kurihara Sadako, Ibaragy Noriko, Morisaki Kazue and others left a painfully critical poem asking the Emperor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war. Hasegawa Ryusei takes up Itou Hirobumi's assassination from An Jung-geun and admires it as a fine justice.

Although Japanese poets have depicted and reluctantly expressed intense repulsion and resistance against Japanese rulers in the past, they transcend the boundaries of different ethnic groups and grief and rage with the Korean people, I have complained. We analyzed Japanese violence drawn through the eyes of Japanese poets, and considered similarities in lyrical feelings with Koreans.

Keywords: Japan contemporary poetry, the empress ruling period, Korea, violence, memory